

불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세례로 삶 속에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국내외 성도들의 소식.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2)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영의 생각으로만 채워 나가야 한다.

온전한 하늘의 상급으로 쌓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기쁨으로 충성하되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사모하며 달려가야 온전한 충성이 된다.

“참된 만족과 축복의 길로...”

은혜를 잊지 않고 봉사로 쌓아가니 축복받았다는 이종영 집사와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은 일본 다카기 하츠에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82호 2017년 4월 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령의 불세례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날마다 불같은 기도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잇따라



“기도하던 중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입해 제 마음 곳곳을 태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화자복과 함께 죄라는 것이 너무 싫어지는 은혜가 임하면서 요즘 제 마음에는 날마다 강 같은 평화가 넘쳐 흐릅니다.” - 광주만민교회 김유은 집사(사진 1)

“제 몸 전체가 커다란 불 속에 휩싸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 안에 성령님이 저의 죄를 위해 대신 회개해 주시고 죄성을 태워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 춘천만민교회 이의진 자매(사진 2)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흥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불같은 성령을 받아 충만해졌으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역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 20일에 시작되어 4월 2일에 마치는 우리 교회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 더욱 뜨겁게 나타났다.

“이복님 원장님이 제 기도를 도와주실 때 성령의 불이 입해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기도가 술술 나왔고 2년 전부터 아팠던 허리도 치료받았습니다.” - 2대대 12교구 조희군 집사(사진 3)

“특별 다니엘철야에 참석하여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어

요. 예전에는 TV, 유튜브, 가요 이런 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생각도 안 나고요, 척추측만증으로 수업 시간에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도 치료받아 너무 행복해요.” - 고1선교회 임고은 자매(사진 4)

성령의 ‘불세례’란 성령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불세례를 받으면 마음 안의 죄성이 태워지고 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치유되며, 가정과 사업터, 일터에서도 원수 마귀 사단이 물러가니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이는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의 불세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되기 때문에 본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GCN방송(www.gcnetv.org)과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에 참석한 국내외 지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역사를 체험하였다.

“기도하던 중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는데, 제 등 뒤에서는 찬 바람이 불어 왔지만 막상 등에서는 불이 타오르듯 뜨거웠습니다. 그 뒤 저의 생각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 말레이시아 리메이리 성도(사진 5)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영혼이 잘되는 것은 물론 삶 속에 응답과 축복도 넘치게 된다. “대학원에서 컴퓨터학을 공부해 졸업했지만 1년간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

런데 특별 다니엘철야에 참석하여 기도하던 중 원하던 분야의 IT 회사에 취직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아누몰 자매(사진 6)

“신기하게 여기저기서 일감이 들어와 축복이 넘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이 많아 사람들에게 대해 오해를 잘했는데 불세례를 받고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 화목하게 지냅니다.” -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파이완 집사(사진 7)

“정부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사무엘 아마타 성도(사진 8)

이 밖에도 수많은 성도가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 회개와 통화자복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물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비진리의 마음을 깨닫고 구습들을 벗어버리는 등 변화의 열매가 넘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마음 깊이 느낌으로 신앙생활의 감사와 행복이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임한 성령의 불세례는 삶 속에 변화와 축복의 열매로 이어지며, 앞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마지막 때의 섭리를 더욱 풍성히 이루게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5)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2)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해도 그 열매를 얻으려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마지막 때 큰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영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버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마음을 헤아려 순복함으로 명령하신 말씀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떠올리게 되니 결국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버린 사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를 깨닫고 그 뜻을 이를 방법론까지 지혜와 명철 가운데 깨우쳐(고전 2:10)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1) 모든 죄악을 벗어나고 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 삼되 머리에만 쌓으면 오히려 판단과 정죄, 교만함만 더해지므로 그것을 마음에 영으로 일구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진리와 위배되는 모든 죄악을 발견하여 열심히 버리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 없어 집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일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수도 사랑하라’는 진리의 지식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제까지 자기를 싫어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미워했던 것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고, 진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인

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아무 리 기도하고 금식한다 해도 여전히 자신의 틀과 고집 가운데 하는 것이라면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참으로 진리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면 무엇보다 비진리에 거했던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벗어버리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악함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마음을 찢으며 통회자복해야 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전 모습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으려는 굳은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악한 속성들이 하나 하나 뽑힙니다. 이럴 때야야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진리의 지식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66권에 기록된 진리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그것을 마음에 채워가는 만큼 미움, 혐기, 간음 등 비진리의 지식들이 버려집니다. 비록 초신자라 할 지라도 말씀을 듣는 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해 가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지요. 결국 비진리를 온전히 벗어버린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음에 있는 비진리의 지식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에 마음에 진리의 지식만 있다면 육신의 생각이 동원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는 만큼 신속히 영의 마음을 이루어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좇아 순종할 수 있으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영의 생각으로만 채워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려면 평소 사람들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보고 들을 때 자기 입

장 속에서 생각하며 비진리 가운데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로 대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며 상대를 선과 사랑, 진실함으로 대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일로 공공연히 책망을 받을 때 자신이 잘못하여 받은 것이라면 감사하며 그 즉시 회개하여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매히 책망을 받았다 해도 상대에게 서운해하거나 감정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혹여 오해가 있었다 해도 결국 풀리게 될 것이고 어떤 해를 입었다 해도 축복으로 바뀔 것이기에 마음에 평안과 기쁨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책망을 들은 자체만으로도 심히 요동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낙심해 기운을 잃기도 하고, 자신을 책망한 상대에 대해 감정을 품으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육신의 생각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마음의 활력을 통해 죄악을 벗어나고 육신의 생각을 호리라도 남김없이 깨뜨려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속히 성결을 이루고 권능을 받아 장차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장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무엇보다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진리의 지식이 있는 만큼 사단의 역사를 받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고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을 명하실 때 순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큰 권능을 많이 보고, 한때는 믿고 따랐어도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설령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순종하며 붙잡았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상(賞)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 하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순간을 기억하여 영육 간에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 주기를 원하신다(히 11:6). 우리의 충성 봉사가 온전한 상급과 축복으로 주어지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분야를 살펴본다.

point 01

◆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힘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변하여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뜨거움이 식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만일 힘든 줄 모르고 했던 일들이 점차 힘들게 느껴지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거나 고생하고 수고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변개한 것이다. 심지어 수년간 감당해 온 봉사의 사명을 그만두기도 하고, 그만두지는 않더라도 전과 달리 서운함이나 불평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구원과 응답, 치료의 역사 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매 순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김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향이 항상 담겨 있을 때라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온전한 상급과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

point 02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인가?

받은바 은혜에 감사해 성전 청소를 한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이기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쓸고 닦아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만일 청소를 하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지? 다른 성도들처럼 나도 이제는 힘들게 봉사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올라갈 수 없다.

하나님 은혜가 항상 마음에 있는 사람은 봉사하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도 불편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항상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섬길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주셔서 봉사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편안할 수 있으니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봉사한다면 찬양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행복이 넘쳐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니 하늘의 상급이 더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

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교훈하고 있다.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만, 모두가 받은바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갚고자 봉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마음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소자라도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하니 그만큼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기쁨으로 봉사할 때, 그 행함이 더욱 진한 향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point 03

◆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므로 주실 상급을 소망하는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다. 즉 그 헌신이 참일 때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믿음으로 섬긴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갚아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진정 소망한다면 봉사하는 매 순간 뜨거운 감사로 더욱 중심을 다해 헌신할 수 있다.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봉사한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오면 손에는 특별한 반지를, 발에는 아름답게 장식한 신발을 주신다. 또한 이

땅의 계급장이나 훈장처럼 남자 어깨에는 화려한 보석 견장이 달리고, 여자 어깨에는 보석 꽃 장식이 달리는데 꽃잎이 폼므렸다 하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 이 견장과 꽃 장식은 각자 충성한 정도에 따라 그 개수가 달라진다.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 그런데 죄를 피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 마음에 성결을 이루어 영으로 들어간 사람과 아직 죄악을 버리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으려면 신속히 마음에 성결을 이루어야 한다.

더구나 마음의 성결을 이룬 만큼 천국의 처소가 달라지고 상급도 달라지며 처소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의 광채와 아름다움도 전혀 다르다.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감당했다 해도 마음을 영으로 일군 만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하되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사모하며 매 순간 천국 소망이 더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결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이다.

날이 갈수록 더 빛난 얼굴로 충성 봉사하여 이 땅에서 영육 간에 축복은 물론 후일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받기 바란다.

4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7.4.2~4.8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세기 강해 115 ■ 요한일서 강해 33-38 ■ 위로부터 난 지혜 1-4 ■ 요한계시록 강해 42-51 ■ 성령의 9가지 열매 5-8 ■ 믿음을 책망하시니 20-24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개에 합당한 열매 2 (이수진 목사) ■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2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60 (이희선 목사) ■ 읊기 강해 29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30 (정구영 목사) ■ 사랑 (김수정 목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세보기) 2 ■ 권능 스페셜 10 ■ 창조와 과학 7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4 ■ 내 마음의 찬양 1 ■ 모두 드려요 59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상 스페셜 2 ■ 뉴욕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
--	--	---	--

전국 어디서나 **allelu TV**

세계 어디서나 **Roku TV**

1998년 12월 29일 이른 아침, 도로 군데군데에 살얼음이 있었는데 돌연 택시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와 제 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제 얼굴은 유리 파편에 여기저기 찢겨졌습니다. 대퇴부와 엉치뼈는 심하게 골절되어 수술을 해도 정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술, 담배를 하고 주일도 안 지키는 초신자였습니다. 응급 수술 후에도 저는 봉대로 꿰뚫어 다리를 큰 추로 천장에 매달아 놓은 채 한동안 병원 침대 위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지내야만 했



“주신 은혜 잊지 않고 봉사하니 감사와 축복이 넘칩니다”

이종영 집사 (57세, 1대대 8교구)



지요. 이런 저를 아내가 휠체어에 태워 당회장 이재복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게 해 주었는데, 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더니 3~4개월쯤 뒤에는 축구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 제 인생의 목표를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자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를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록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져 구원받은 은혜에 감

사가 넘쳤고 부어주시는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까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지요.

2001년, 제가 시작한 것이 바로 주일 국수 봉사였습니다. 주일마다 국수를 삶고 육수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장애 5급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권능으로 완벽하게 치료받아 건강해진 몸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가니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 삶 속에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정리해고 바람이 한창일 때에도 지켜 주셨고, 본사 발령을 통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생각지 못한 물질 축복도 받았지요.

작년 봄에는 정년퇴직 후의 진로를 놓고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더니 좋은 조건으로 동종업계 이사로 스카우트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만민봉사대 일반대 대장이라는 직분을 받은 뒤, 저는 충성스러운 대

원들과 함께하며 신앙생활의 더 깊은 행복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철야 때마다 대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때때로 형편이 어려운 대원들이 있으면 구제도 하며 돌아보니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으며, 올해 초 교회에서 주는 우수상도 수상하였지요.

아내 홍화진 권사는 자궁선근증을 예매 시 당회장의 환자기도로 깨끗이 치료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있었지요. 다니엘철야를 마치고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평 하는 굉음과 함께 인근 상가에서 LP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로 왔더라면 가스폭발 시점에 사고 현장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순종했더니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항상 보호하시고 온 가족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항상 보호하시고 온 가족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4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